

2017. 10. 19.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

주최 :  Konrad
Adenauer
Stiftung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주관 :  **여명학교**
Yeomyung School

시간표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20	<p>사 회: 조명숙 교감(여명학교)</p> <p>개회사: 이홍훈 교장(여명학교)</p> <p>축 사: 슈테판 잠제 소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p>
14:20~15:10	<p>발표 1. “북한 교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방법의 변화 양상” - 엄현숙(서울통일교육센터 교수)</p> <p>발표 2. “북한 교육방법의 특징과 통일 준비 제언” - 이승주(여명학교 교사)</p>
15:10~15:30	질의응답
15:30~16:20	<p>발표 3. “통일 이후 학교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지역 학교구조, 교원 고용 현황, 커리큘럼의 변화 - Dr. Rita Nikolai(베를린 훔볼트 대학)
16:20~16:40	질의응답
16:40~16:55	휴 식
16:55~17:40	<p>패널토론</p> <p>사회: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p> <p>토론 1. Rita Nikolai (베를린 훔볼트 대학 교수)</p> <p>토론 2. 엄현숙 (서울통일교육센터 교수)</p> <p>토론 3. 이승주 (여명학교 교사)</p> <p>토론 4. 이혜경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연구위원)</p> <p>토론 5. 윤봉이 (여명학교 교사)</p>
17:40~18:00	질의응답
18:00~19:00	저녁 만찬

차례

<개회사>

1

<발제문>

“북한 교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방법의 변화 양상” 3

- 엄현숙(서울통일교육센터 교수)

“북한 교육방법의 특징과 통일 대비 교육방법” 24

- 이승주(여명학교 교사)

“통일 이후 학교정책” 41

- Dr. Rita Nikolai(베를린 훈볼트 대학)

개회사

200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빈번한 남북교류 끝에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망도 더욱 커져 갔습니다. 독일이 보여준 평화통일 모델은 대한민국의 통일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기꺼이 대한민국에 전수해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협력해 주셨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여명학교는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남한과 매우 다른 것처럼 북한의 교육도 남한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에 남과 북의 교육도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하여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 병진 노선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 또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아침도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상황은 언제든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10월에 여명학교에 방문했던 독일의 가우크 대통령의 말씀 중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서독에 입국한 많은 탈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거나 그들을 통해 통일 이후의 교육을 준비하지 못했다. 동독지역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법 등 동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더라면 통일 후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을 교육하며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데나워 재단과 여명학교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북한교육방법의 특징과 통일대비 교육방법론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독일 베를린 훈볼트 대학의 리타 니콜라이 교수님께서 금번 세미나를 위해 방문해 주시고 발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교육 상황에 대해 서울통일교육센터의 엄현숙 교수님과 여명학교의 이승주 선생님의 발제 또한 기대가 됩니다.

본 행사를 위해 전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아데나워 재단의 슈테판 잠제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통일 후 교육 분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명학교 교장 이홍훈

Session 1

**“북한 교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방법의 변화 양상”**

**- 엄현숙
: 서울통일교육센터 교수**

북한 교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방법의 변화 양상

엄현숙¹⁾

I. 북한교원의 역할

1. 교원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관점

현 북한 사회에서 교원의 역할은 혁명가로서의 기능적 역할보다 가르침의 본질적 역할을 우선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북한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교원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인 동시에 ‘어머니’이며 ‘원예사’이다. 2000년대 북한은 기존의 교원의 역할을 승계하되, 교수의 ‘조정자’, ‘조직자’, 그리고 ‘연출가’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2015년 ‘교원법’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교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로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후속세대를 양성”해야 하는 책임과 그에 합당한 삶이 추구되며 이에 대한 관점은 아래의 인용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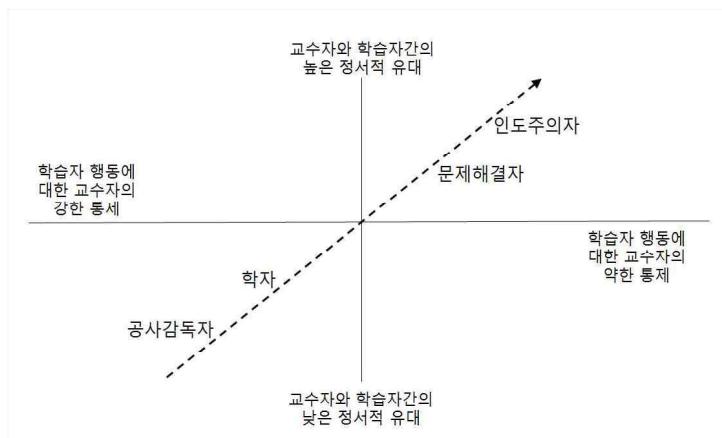
(중략) 우리 교원들에게 안겨주신 직업적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는 교원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후대들을 혁명의 주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참다운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는 바, 자질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실무적 능력이나 수완, 실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면에 있어서 교원은 학생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교수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원은 새 세대들을 이른 바 ‘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내야 하는 인간개조 사업의 선봉에 서있게 하였다.

교원의 역할이 변한다는 것은 교원과 학생의 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교육방법에서 변화를 동반한다. 교수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은 교수의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로서 설명할 수 있다. 교육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 축은 미국 교육의 목적과 교수방법의 발전 흐름에 기초하여 나눈 온스타인(Ornstein)과 밀러(Miller)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온스타인(Ornstein)과 밀러(Miller)는 교수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 축으로 교원이 학생들의 학습을 어느 정도나 통제하는가와 교원이 학생들과 어떠한 정서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두었으며 이로부터 교원의 역할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 서울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 북한학 박사

【그림 1】 교수방법이 고려되는 두 가지 축과 그에 따른 교원의 역할



위의 예는 교육의 목적이 사회발전사에 따라 바뀌게 되면서 교원의 역할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 교육이 연습과 기억위주의 권위주의적 형태를 취하게 되면 교원의 역할은 공사 감독과 같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진보적인 교육 철학에 힘입어 학생의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존중이 되면서 부터는 해결자로서의 교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20세기 중 후반을 거치면서 교원과 학생들이 어떠한 정서적 관계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교수방법에서 인도주의적인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경우, 1950년대 말 북한에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이후 1960년대를 거치는 과정에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이 본격적으로 강조된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교육의 성격과 목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신 각 시기별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원의 역할이 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교육은 해방 후 국가 형성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동원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치적 변화에 의해 구분되는 각 시기별 교육정책은 그에 따른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즉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될수록 교원의 정치 실무적 능력이 중시되었고 교육적 수완이나 실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부터 북한에서 교원은 “그저 학생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앞날의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키워내는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어야 했다. 이때부터 교원의 역할은 ‘어머니’와 ‘원예사’로 대표되었다.

우선, ‘어머니’론은 “모든 아동은 부모와 떨어질 수 있을 때부터 국가기관에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받는다.”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교육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교원들은 부모들 특히 어머니를 대신한다. 김일성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이들을 나아서 기르는 것이 어머니”임을 주목한다. 또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유치원과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양 받는 시간이 얼마 안 됨을 강조한다. 이로부터 ‘어머니’론의 핵심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보내면서 교양을 받기 때문에” 교원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데 있다.

또한, 교원은 꽃을 가꾸는 ‘원예사’와도 같다. 교원의 ‘원예사’론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교원들은 인민교육의 화단에 혁명의 붉은 씨앗을 뿌리고 혁명의 붉은 꽃봉오리들을 가꾸는 원예사들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매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의 꽃이 어떻게 피여나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교원에게 달렸습니다.

‘원예사’라는 역할 역시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북한 교원의 성격으로부터 출발한다. 전정태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교원의 사랑은 장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수행할 수 있는 후대양성을 위해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침투하여 만족을 느끼고 진실하며 소박하고 육체적 사랑을 기울일 것에 대한 요구라고 보았다. ‘어머니’론과 더불어 ‘원예사’론은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교원으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육친적 사랑과 직업에 대한 영예감과 긍지를 가질 것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안적 관점으로서의 교원의 역할 변화

1) 과도기적 단계

2000년대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가 부각되면서 북한은 교원의 기능적 역할보다는 본질적 역할의 향상 쪽으로 기운다.

1990년대 체제붕괴의 위기를 넘긴 북한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서재진에 의하면, 북한은 80년대 말에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했을 때 사상통제 강화에 최우선 정책순위를 부여하고 사상통제에 안간힘을 다하였다. 사상통제를 위하여 경제까지 희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난 때문에 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이전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시작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그해 1월 과학원 방문을 계기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이라는 새로운 의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0년대 북한은 ‘교육에서 실리주의’가 전면에 나섰다. ‘교육에서 실리주의’가 지칭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조정아는 크게 세 가지로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단기간에 이 분야의 인재를 대거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발굴과 양성에 중심을 둔 교육체계의 개편을 의미한다. 셋째, ‘성적본위, 실력본위’ 교육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방향성은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었다. ‘교육에서 실리주의’는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중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절박함은 교사의 본질적 역할 수행에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학생들의 실력은 곧 교원들의 자질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며” 교원들의 자질향상은 “학생실력과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교원의 역할로 제시된 ‘조직자’, ‘조정자’는 교수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강조 하에 제시된다. 아래의 인용은 ‘조직자’, ‘조정자’

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밝힌 내용이다.

교수에서 교원이 능란한 조직자로 된다는 것은 교원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 교수활동을 끌고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교원이 학습활동의 조직자, 인식활동의 조정자로 되자면 다음으로 교수를 능란하게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교수에서 교원은 학생들의 인식활동의 직접적인 조정자이다. 교수에서 교원의 조직자적 위치는 조정자적 역할에 의해 담보되며 그의 역할은 조직자적 위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실현될 수 있다.

교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교수에서 교원의 장악력, 통제력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알게 한다. 다만, 학습자의 수용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원중심적인 논리에서 유연함을 찾아볼 수 있다.

2) 대안적 관점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교원에 대한 관점이 ‘조직자’, ‘조정자’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대안적 관점으로 이행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여기에 12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는 가르침의 근원이 되는 교원의 본질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게 하였다.

오래전부터 북한에서 체제 우월성을 과시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의무교육제이다. 하지만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의 ‘결과’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나타난다. 첫째로, 2014년 UNESCO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발전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교사자격을 키우고 있지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범교육을 이수한 교원의 부족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공적인 집행을 방해”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 집행 총화에서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1년제 학교전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 중학교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소학교가 1년 늘어나는데 따른 교원 확보와 중학교를 둘로 갈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행정관리 인력 문제는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공적 실시와 직접 연관된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요하게는 북한이 과거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4년은 교원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이 노출된 해로 9월 북한은 『교육신문』을 통해 교육부문에 심각한 결함들이 발로되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교육 실천에서 나쁜 결과들이 초래된다면서 나열된 결함의 첫째는 ‘무자격 교원’에 의한 교원 자질의 저하이다. “전국적으로 무자격교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교원들의 자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자격풍모가 바로서지 못한 교원들로 하여 여러 가지 편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가 그것이다. 결함에 대한 이상의 지적이 2014년 임을 생각할 때, 12년제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과정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교원 경력자’, ‘교원 적격자’에 관

한 전략이 교육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러한 문제의식 등에서 비롯되어 2014년 교원의 역할은 새롭게 정의되었고, 교수의 ‘연출가’론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교육신문』 사설에는 “교원들이 어제날에는 교수의 ‘출연자’였다면 오늘에는 교수의 ‘연출가’로 되는 것이 교육발전추세”라는 이른바 ‘연출가’론이 등장한다. 사설에 의하면, ‘연출가’론의 핵심은 “인식의 주체인 학생들이 배우주는 내용의 본질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원이 수업을 유도해나가는 것”이다. 새롭게 부여된 교원의 역할은 북한이 학습자의 수용 태도를 주목하고 기존의 교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출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교육학 분야가 아닌 연극학이나 영화, TV드라마 등에서 활용된다. ‘연출가’에 대한 정의는 남과 북에서 비교적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연출가’는 영화나 연극, TV에서 작품 전체를 연출해 내는 사람이다. ‘연출가’는 하나의 작품을 토대로 배우들의 선정뿐만 아니라 연기, 무대조명, 배경, 장치, 의상, 음악 등 모든 부분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공연이라는 하나의 총체적인 효과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연출가’는 “무대 및 영화예술창작에서 연출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예술가들의 창작을 하나로 통일시켜 전일적 형상을 창조해나가는 창작단의 사령관”을 의미한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연극은 종합 예술이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이 개인 중심의 예술이라면 연극은 혼자서는 해 낼 수 없는 집단 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술의 주체는 남과 북으로 다르지만 정의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출연자’와 ‘연기자’는 용어는 다르나 개념정립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교수행위를 종합적 예술행위로 묘사한 사람 중 대표적인 예로서 시버그(Seaberg)의 경험적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교수행위의 특징을 예술가에 두었다. 이에 기초하여 교수자의 역할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교실 속의 끝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 네 가지는 정치적 환경, 현상학적 환경, 기술 공학적 환경, 그리고 종합연출자로서의 심미적 환경이다. 정치적 환경, 현상학적 환경, 기술 공학적 환경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이를 교수자 나름의 독특한 모습의 가르치는 예술을 창출하는 것을 심미적 환경으로 보았다. 그는 교수자를 교실 내의 물리적 환경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진단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연출하는 종합연출자와 같은 예술가로 설명하였다. 이로서 가르치는 사람 하나하나가 각기 자신의 최적의 교수방법을 가꾸고 만들면서 더 나은, 더 적합한, 더 발전된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수자의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적 노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박한봄 역시 교수행위를 연극 무대에 비교한다. 교수는 무대 위의 배우나 연설자이며 환한 조명을 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만족하든 안하든 연극의 관객이 받는 감동과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연기자와 마찬가지로 교수도 관객에 대하여 강한 존재의식과 집중력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앞서서 살펴본 교원의 역할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은 정치 이론적으로나 교육 실무에 있어서나 교원의 주도적 역할이 핵심을 이룬다.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의도된 수업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사가 체계적 계획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르치는 행위는 수업기술을 실행하는 역할 중 핵심적인 실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학생의 배우는 활동은 인류가 이룩한 선진사상과 과학지식, 기술, 정서와 문화를 체득하며 자신을 세계의 지배자, 창조자로 개조하는 자각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으로 밝힌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동의 ‘자율적 발전’의 최대한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교수에서 교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반동적인 교육이론으로 치부되고 경계되었다.

2014년 교수의 ‘연출가’론은 이러한 기준의 관점에 변화를 가져온다.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역할은 교수가 교원과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작품을 추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앞서 교수를 종합예술에 비교한 시버그(Seaberg)나 교수행위를 연극 무대에 비유한 박한준의 견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시버그(Seaberg)의 종합연출가는 교수자의 예술적 노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면, 박한준이 보는 교수의 연기자 형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재능에 관한 견해이다. 반면에 교수의 ‘연출가’는 교원이 단순히 교수의 ‘출연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연극의 무대에 함께 세워 하나의 무대 즉 교수를 완성하는데 있다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14년 교수의 ‘연출가’론과 더불어 눈 여겨 볼 부분은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선전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모란봉악단’이다. 북한은 한 곳에서 모범을 창조하면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방법에 익숙해 있다. 2014년 일반화의 모범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모란봉악단’이며 그를 통해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래의 인용에 드러나 있다.

몇 명 안 되는 가수들과 연주가들의 열정과 랑만에 넘친 세련된 예술적형상,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어울려 끝없이 고조되는 공연열기,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운 풍만한 울림, 화려한 무대와 특색있는 조명, (중략) 공연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적 요구와 미감에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지향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끝없는 격정을 안겨주고 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국가적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주입하면서도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움이 충만 된, 객석과 무대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울림이 있는 격정을 선사했다는 점이다.

중요하게는 21세기 북한의 교육이 지식전수가 아닌 ‘창조적’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따라 배워야 할 전형적인 모범에 속한다. ‘창조형의 인재’ 양성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2013년 2014년 교육부문만이 아닌 북한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이다. 이에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북한 사회에서 꾸준히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교원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모란봉악단’의 공연방식에 대한 재해석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시기 예술부문에서는 음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수와 관중을 갈라놓고 진행하던 공연의 형식을 깨버리고 가수가 관중석에 내려와 관중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등 관중과의 호흡을 밀접히 하고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업의 효과를 높이자면 새 지식의 세계에로 학생들이 깊이 빠져들게 하여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활동을 벌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창조적’ 능력 향상이라는 시대의 화두에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 교원으로서의 가르침 그 자체보다는 혁명가로서의 기능적 역할 수행을 강조해 온 북한은 이후 교원의 본질적 역할 수행을 중시하고 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동시대인으로서 능란한 기량, 높은 실력이 전부가 아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대중음악의 속성이 바뀐 것이다. 가사에만 익숙 되어 있는 대중을 스토리텔링의 세계으로 인도 한 것이며 음악과 스크린에 의한 메시지 전달의 창조적 사례이다. 흔한 선전성의 노랫말이 아닌 스크린의 스쳐가는 장면들에 국가가 주고자 하는 선동성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문에 던지는 의미는 새로울 수밖에 없다.

4. ‘교원법’에 나타난 인식전환의 예

북한이 교원의 본질적 역할 수행 즉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교원법’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교원법’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할 데 대한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합으로부터 올바른 집행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은 “변화 발전된 사회관계를 법률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서 결정한 다섯 가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다.

‘교원법’의 채택은 위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원법’이 2012년 법령에 따른 법제정비의 하나로 채택되었음을 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교원법’은 법의 기본, 교원의 자격과 양성, 교원의 교수 교양과 과학연구 사업, 교원의 자질향상, 교원에 대한 우대, 교원의 사업조건 보장과 법적 책임의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법’ 제정을 전후로 북한에서 교원의 자질에 대한 위기감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 집행총화에서 한 보통교육상 김승두의 보고가 그것이다. 또한, 2014년 UNESC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기준 북한의 교원은 296,664명이다. 2012년 소학교 기준 한 학급당 학생 수는 28.9명으로 2008년의 31명보다 작아졌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2명인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2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학생 수는 280,000명 줄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시행된 12년제 의무교육의 실행은 소학교 교원 수와 교실 수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

한은 “정부가 교원의 공식을 채우고 있으므로 통신교육과정 졸업생이 있는 지역에서 그 질을 향상” 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과가 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원의 평균 수준도 낮으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교원법’은 교원의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즉 앞서 언급된 교원의 정치 실무적 자질이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자면 그에 상응한 조건이나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미달된 교원들이 학교교육에 유입되고, 과거 교육을 받았던 교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요구에 상응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교원은 교원의 자격에 대한 인식을 시대의 높이에서 새롭게 가져야 한다. 대학졸업증이 교원자격을 대시하는 때는 이미 지나갔다. 어제 날의 성과에 도취되어 자리지킴이나 하는 교원, 경직된 사고로 조건타발만 하면서 새것을 무시하는 교원, 자질과 능력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는 교원들은 시대적사명감으로 상실한 사람들이다.”는 평가를 내리고,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선군혁명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등을 언급함으로서 시대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새 교육 강령 집행에 있어 교원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수업과 연습, 보여주기, 실험실습 등 교육 강령에 예견된 형태별 교수를 어감없이 집행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내세웠다. “새로운 의무교육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잘 빼고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자면 뭐니 뭐니 해도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언급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지적능력 개발에 힘 쓴는 북한 교육의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업활동에 높은 가치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교원의 중요한 일로, 그로 인해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얻게 한다는데 있다.

이처럼 ‘교원법’은 달라진 시대상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교원의 역할 함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I. 북한 교육방법의 특징

1. 전통적인 북한의 교육방법

1960년대 중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 등장 한 이후 11년제 의무교육이 지속하는 기간 북한의 교육은 교과서에 따른,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12년제 의무교육을 선포한 지금 북한의 교육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수방법에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방법을 개념화하거나 해석하기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범주화된다. 넓은 의미의 교육방법은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이외에 교육과정, 학급경영 방법의 기본적 원리나 시청각적 방법까지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교육방법은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실현되는 학습지도 과정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학교에서 적용되는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방법’이며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북한의 대표적 교수방법이다. 북한이 규정하는 교육방법은 “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조직, 교육활동의 방식과 수법의 총체”¹⁾이며, “사람들에게 교육적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는가 하는 문제로서 교육내용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편찬국 편, 『조선대백과사전 2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629.

과 함께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²⁾로 정의된다.

지난 시기는 지식 전달을 위한 교원의 설명과 이를 보충하는 직관물 제시, 및 질문이 기본 교수방법이었다. 따라서 교수방법을 논함에서도 대부분 초점이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결과 교원의 화술적 기량과 기교에는 많은 비중은 두었으나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교수·학습 과정)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철저히 표준화”되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수의 통일성을 이루게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학생들 자신이 사물 현상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깨닫도록 하는 교수방법’이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교수방법이다. 사전적 의미로 ‘깨우쳐주는 교수’란 대상자들이 깨달아 듣도록 지식을 하나하나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하는 교수를 말한다. 북한의 『조영사전』은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the heuristic method of teaching’으로 표기하고 있다. ‘heuristic’은 교육학 용어로 비구조화된 영성한 사태나 환경에서 질서나 원리를 찾아내는 것, 학교 학습 사태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주된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수업의 상황을 일컫는다. 하지만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개념적 정의로는 ‘발견적 학습법’에 가까우나 실제로는 목표 우위이며 교원 중심의 교수방법이었다.

교수방법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매개 자료로 하여,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가의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학습의 과정은 이들 여섯 가지 요소(목적, 내용, 방법, 교수자, 학습자, 환경)와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교원들은 교육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수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이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것으로 북한은 지식의 선택과 전달에 직접 개입하고 지식의 전달자인 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교수·학습 과정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배웠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2. 교사 인식변화에 따른 북한교육방법의 변화 가능성

교원과 학생, 학생들 호상 간 협력 및 교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수방법은 자연스럽게 학생의 시각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아래에 인용한 내용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인류가 정보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교원들속에서도 교수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탐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족점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대한 탐구가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중략) 지난 시기 교수안을 보면 대부분 지식측면에 대한 준비는 잘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게 하겠는가 하는데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자연히 교수안은 수업절차, 지식내용으로 씌여진 것뿐이였다.

위의 인용은 북한이 기존의 교과서 중심, 교원 중심 수업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2)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광명백과사전 7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p. 17.

하지만, ‘세계교육발전추세’에 전혀 노출이 없었던 절대다수의 북한의 교원들에게 교수방법의 변화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도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북한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려는 혼종적인 모습은 교수방법 변화의 또 다른 장애로 작용한다.

북한의 교원 집단은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양성된 교사들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이미 동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육을 동질화시키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들에게 교육 작업의 수행과정에 다양한 교육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도 교육 작업의 동질성을 해치는 이질적이거나 이단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아비투스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오랜 교육 연한을 가진 교원일수록 새로운 지식과 새 시대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교육 당국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사실 교원들이 오래동안 굳어져온 지식전달위주의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수로 방향전환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제도적으로 장려되어 오던 모방은 역설적이게도 창조를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범교수’와 ‘방식상학’이 그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우수하고 선진적인 교육경험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교수방법의 변화를 원하는 북한 교육 현실에 경계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다. 모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아래에 모방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을 인용하였다.

“예고하고 진행한 교수참관의 결과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예고없이 참관한 교수의 질적수준은 시원치 않았다. 또 설사 잘되었다고 하는 교수도 따져놓고보면 자기 몸에 푹 배이지 않은 남의것에 대한 <<모방>>에 가까운것이였다.

“나는 먼저 오랜 교원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그들의 교수수법을 따라배우기 위해 힘썼다. 그러다나니 적지 않게 교수에서 다른 교원들의 수법을 <<모방>>하게 되었다. 결국 교수는 사색과 탐구가 부족한 것으로 하여 새것과 자기 뜻이 없는 고정불변한 것으로 되었다.”

인용에 의하면, 전자는 교육 일꾼의 시각이며 후자는 교원으로서의 관점이다. 전자의 경우 준비된 수업이라 할지라도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한다. 반면에 후자는 경우는 남의 것을 모방하다 보면 자신의 창의력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시대의 개선 열풍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나 보다 구체적인 방도를 찾기보다는 흥미 본위의 남용을 경계하고 있었다. 제시된 사례들에는 보여주기와 관련된 반성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

“여러 강좌들이 내놓은 본보기수업들이 꼭 한가지 형태라는데 주의를 돌렸다. 왜 이런 현

상이 나타나는가? 료해를 해 보니 깨우쳐주는 교수수법이 수업내용의 과정에 따라 창조적으로 탐구적용해야 할 수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한데 있었다. 교수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좋은 수업이라고 하여 수업내용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던 편향을 극복하였고 그 탐구를 해당 수업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흥미, 어려움정도를 기초로 하여 진행하는 기풍도 수립되게 되었다.”

사례들은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창조적으로 탐구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교수방법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한 사람의 몸을 채서 만든 옷을 열사람에게 입히듯 똑같은 수법”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창조’를 요구하나 ‘똑같은 수법’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북한의 교수방법 전환의 움직임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바로 새것이 무엇인지 분간 할 줄 아는 ‘새로운 눈’의 부재이다. 이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북한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었던 뿌리 깊은 관행이자 문제였다.

2014년 북한이 『교육신문』에 고정란까지 만들면서 “세계교육교양참고자료”를 소개한 이유도 결국에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틀에만 갇혀 있는 교원들의 눈을 틔워 주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2012년 등장하자마자 김정은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도적, 정책적 오류보다는 개별적인 교원들의 수준이나 질에 떠넘기었다. 하지만 해가 가면서 취해지는 조치들은 개별적 교원들의 수준이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알게 한다.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와 안으로부터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우월성 고취가 지금의 교수방법의 뿌리 깊은 관행이며 문제를 키워 왔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창조형 인재’ 양성에 관한 당국의 관심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체계가 갖는 우월성과 지나치게 학습자 중심으로 이해함으로써 갖는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의 자체학습에 대한 자유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교수목표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현상도 있을수 있다.”

위의 인용에는 ‘능력교육’이 우선시 되면서 교수·학습 과정이 점차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결과적으로는 ‘창조’를 원하나 무엇이 ‘창조’ 인가를 잘 모르고, ‘창조’를 원하나 그로 인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혼종적인 모습은 교수방법 전환을 추구하는 북한 교육의 현주소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교원의 역할에 수정을 가하는 양상이 교수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북한 교육의 현주소는 교원의 역할 변화와 교수방법의 변화가 일치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III. 결론

오래전부터 북한의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이며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왔다. 북한의 경우 교원의 역할은 시기별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규정되었다. 교원의 역할은 ‘어머니’, ‘원예사’였으며 이후 교수의 ‘조정자’, ‘조직자’, 교수의 ‘연

출가’ 등으로 진화해 왔다. 분명한 것은 현 북한 사회에서 교원의 역할은 혁명가로서의 기능적 역할보다는 가르침의 본질적 역할을 우선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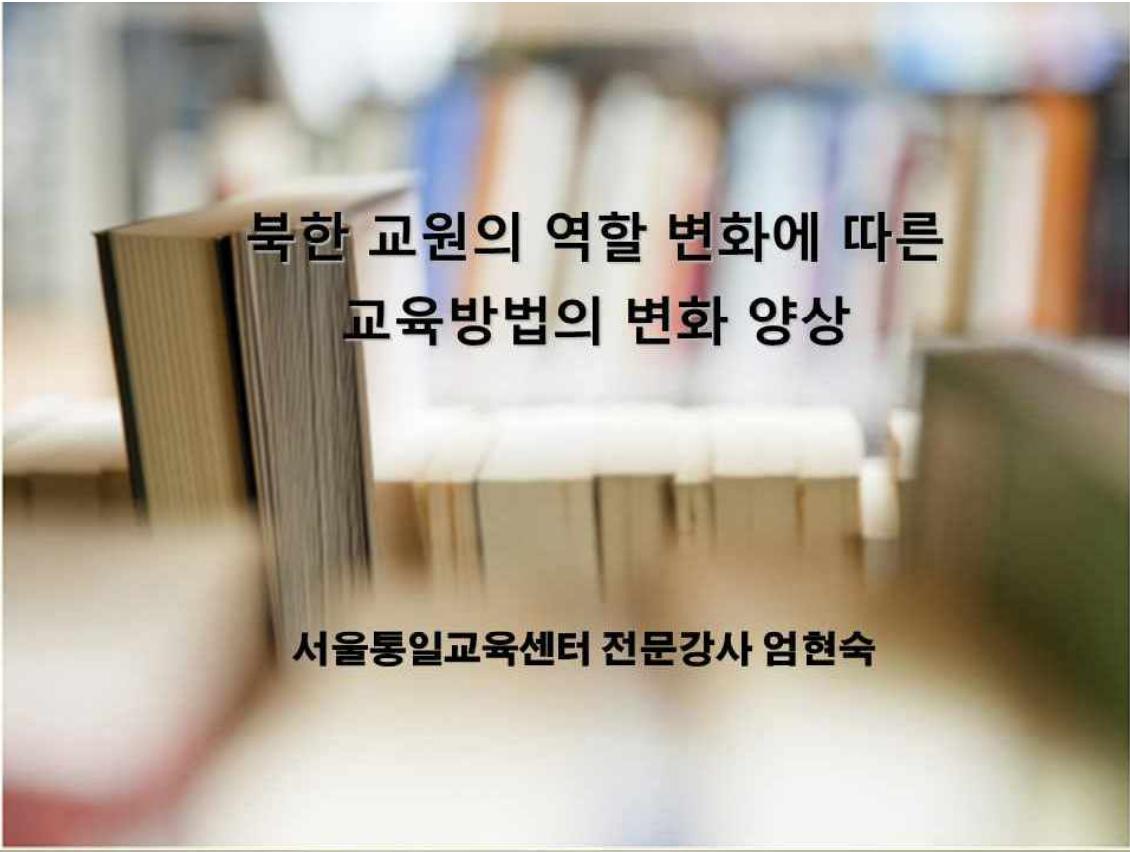
2017년 현재 북한의 교육은 교육내용의 조직전달 방식, 멀티미디어 매체의 적극적인 도입 등에 따른 교원 학생 간 의사소통방식, 교원의 역할 변화, 교육방법의 변화에 이르기 까지 교육전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선, 1960년대 후반 고착화된 혁명 의식, 혁명 지식 전수의 새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는 시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교과서 전반을 새롭게 개정 및 집필하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교육 내용 자체의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조직 및 전달의 방식이 바뀐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교과서 내용 전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북한 교육의 뿌리 깊은 관행에서 비롯된, 모방과 도식, 반복과 유사성으로 표현되는 ‘시범상학’, ‘방식상학’은 북한의 고전과도 같은 교육방법에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교원들의 부족한 유연성이 문제이다. 특히, 오랜 교육 연한을 가진 교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례는 역설적이게도 교육의 통일성이 주조한 기성세대의 교육 경험이라는 또 다른 장애이다. 다음으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는 반면에 구체적인 방도를 찾기보다는 흥미 본위와 멀티미디어 매체의 과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다.

통일을 가상하여 학계의 통합 교과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과 오늘 세미나의 의미를 놓고 볼 때, 북한 교육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통일 이후의 또 다른 어려움을 예측하게 한다. 교과의 내용이 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그를 집행해야 하는 교원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성공적 실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첫째, 앞서 언급한 교육방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별 맞춤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오랜 교육 연한과 신규 교원 집단의 연령별, 직무별, 수준별 단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방법 연수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셋째, 미숙한 멀티미디어 매체 사용과 활용 기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리 한국의 교육을 경험한 다수의 탈북민 출신 교사진을 잘 갖추고 북한의 교원 집단을 재교육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해야 한다. 다섯째, 탈북출신 청소년을 교육, 경험한 한국 내 교사의 폭을 확장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 출신 교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 본 글은 페이지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각주 및 참고문헌을 삭제 하였으므로 복사, 인용을 금합니다.



북한 교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방법의 변화 양상

서울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 엄현숙

12년제 의무교육

2012년 9월 법령 채택 < 기존 11년제

학교 전 교육 '유치원 높은 반' (1년) 2014학년도부터 새 과정안

소학교(5년) 2013학년도부터 < 기존 4년제

초급중학교 (3년)
2013학년도부터 < 기존 6년제

고급중학교 (3년)

* 2014년도 부터 실제 조치 - 2017년까지 완료
새 과정안, 새 교과서, 새 교복, 가방, 학용품

『조선신보』, 2012.10.01, 2013.10.07, 2014.04.09, 2015.04.01,



<https://www.youtube.com/watch?v=TcSrkbxQG7o> 검색일, 2014년 6월 24일

2015년 새로 채택된 법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원법’
 - ▶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8호로 채택
 - ▶ 교원은 여러 형태의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교양 사업을 맡아 하는 일군
 - ▶ 학교교원: 유치원교양원,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각급 1 중학교), 학원, 대학, 각급 양성기관, 재교육기관, 청소년체육학교, 기능공학교, 장애자교육을 위한 맹, 통아학교
 - ▶ 사회교육기관교원: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 학생소년 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 ▶ 비 생산부분 사(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생활비 지급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2016, pp. 348-354.

교과서 내용 전개 방식 변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군정학습기간에 군사, 학습과 혼연을 더욱 잘
파악해 하시었다.
그리하여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주체적인 군사작전과 전략적 승리를
걸어 체득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령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3·1 운동』, 『서정』 등 학령 적술관들을 일 간하여 널리 배울하게 하시
었다.
우리 이르는 곳마다에서 구호를 선풍하고 대원들과 인민들을 고양하도록
이끌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기지지과 회의장소, 수영장, 천학장소 등은 나무들과 바위
들에는 수많은 구호들을 띠어졌다.
구호들은 『조선민족의 최고원수 김일성 만세』, 『조선공포들이 이 모
두리 단결하여 우리 민족으로 삼성의 금강을 광복하자』 등 여러가지 내
용을 담겨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군사 정치활동에서 자주
책임을 지어가기 위한 일정으로서 청반 척조설립영은 새로
운 영향을 미쳐하게 되었다.
제6회 고난의 행군
제6회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1월 남해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와 장애인대의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었다.
제6회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1월 남해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와 장애인대의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었다.
제6회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1월 남해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와 장애인대의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었다.
제6회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1월 남해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와 장애인대의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 1999년 4판 고등중학교 4학년, 2013년 발행한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제2장

6. 고난의 행군

남해자치회

1938년 가을에 이르러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
게 되었다.

국제당의 괴정모임 주의자들이 강요한 암하현정의 후파로 중국인 항일
무장부대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것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적의 대
병력과 거의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것이다. 한편으
로는 혁신간장을 통하여 국내와 장애인대의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었다.

『영화현경계획』은 중국동북지방의
항일무장부대들이 신약지대를 떠나
적들이 침몰되어있는 청야지대를
거쳐 영토방면으로 진출해서 중국
본토로 치돌들이는 일제를 타격하
라는것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 난관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주체27(1938)년 11월 남해자
에서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
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로
진출함에 대한 방침을 내놓으셨다.

국내에 한번 물들었을때로서 혁명을 계
속 전진시키기 위한 방침이었다.

국경일대의 행군 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남해
자치회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
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로
진출함에 대한 방침을 내놓으셨다.

이 행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83

교과서 내용 전개 방식 변화

○ 실험결과를 종합한 다음 평균값과 오차를 계산하여 여러모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일어진 결과가 관찰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세웠던 가설이 옳은것으로 되며 세로운 과학학설이 세
워진다. 이 새로운 과학학설에 따라 진행하는 실험은 그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일어져야 한다.

④ 과학답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본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하여
농업을 비롯한 생활을 다루는 경제분야와 인민보건실천 등에 모임
한다.

생각하기
생물학답구의 일반문제를 도식으로 그려보시오.

23

퀴즈나그리기 생활에 주는 주요환경요인의 영향

책적
퀴즈나의 생활에 주는 및, 물기와 같은 주요환경요인의 영향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과학답구의 방법을 배운다.

문제
산이나 들과, 접근처에서 흔히 볼수 있는 퀴즈나의 축축하고 해가 잘
비치지 않는 이목립처럼 끗에서 산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제2장 자연수

생각하기

- 4의 배수들의 모임은 $A = \{4, 8, 12, 16, 20, \dots\}$ 라고 할 때
1) 모임 A 에 속하는 일의 두 수의 합이 그 모임에
속하는가 알아보시오.
2) 모임 A 에 속하는 일의 두 수의 차는 자연수이며
적이 그 모임에 속하는가 알아보시오.

- 생각하기**
4의 배수 + 4의 배수 = 4의 배수인가?
4의 배수 × 자연수 = 4의 배수인가?

$$\begin{array}{rcl} \text{○의 배수} & + & \text{○의 배수} = \text{○의 배수} \\ \text{○의 배수} & \times & \text{○} = \text{○의 배수} \end{array}$$

어떤 자연수
의 배수는 그
수에 다른 자
연수를 곱하
서 얻는다.

- 문제**
1) 13의 배수인 39와 26의 합 65는 13의 배수이다.
 $65 = 39 + 26 = 13 \times 3 + 13 \times 2 = 13 \times (3+2)$
2) 504 = 12 × 42에서 수 12는 2, 3, 4, 6의 배수이므로 504도 역시 2, 3, 4, 6의 배수이다.

- 문제**
1. 다음과 같이 풀은가?
1) $24 + 56 + 96$ 은 8의 배수이다.
2) $9 + 99 + 999 + 9999$ 은 9의 배수이다.
3) 25×13 은 5의 배수이다.
4) 703×136 은 18로 나누인다.
2. $123456789 \times 9 = 1111111101$ 이다. 다음과 계산하시오.
1) 123456789×27 2) 123456789×54

제1장 음근수 15
개정된 초급중학교 1학년 ‘생물’ 교과서, 초급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내면화의 메커니즘



“북조선 평양주민의 하루,” <<http://www.youtube.com/watch?v=aFFHeKLDPCU>> (검색일, 2014년 06월 02일), 제작 : 골든 몽키 엔터프라이즈, 제작년월일 : 2014년 3월 30일,

소학교 3학년 수학



날자	제목	내용	강조
01.30.	기성관념을 버리자	학생의 지위에 대한 관념을 갠신. 학생을 어떤 지위에 올려놓는가 하는 것이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고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배우도록 하겠는가?
03.27.	'침묵지식'의 매력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은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바로 학생들의 경험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침묵지식', 교원에 의해 발굴되지 않을 때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교원은 '침묵지식'을 발굴하는 것을 옳게 결합해야 한다.
04.24.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교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와 위력은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는데 있다. 교원은 아주 어리고 보잘 것 없는 학생이지만 그의 내면에 숨어있는 미래에 대한 꿈과 욕망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 없다.
09.18.	손이 가벼운 교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을 하다 보면 얹이 막힐 때가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옥하고 치미는 괘씸한 생각 같아서는 한번 쯤 속 시원히 두들겨 패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설 때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손이 가벼운 교원이 되지 말고 칭찬 잘하는 교원이 되자.

북한교육의 현주소

- ▶ 1960년대 후반 고착화된 혁명의식, 혁명지식 전수 목표는 그대로
- ▶ 교과서 변화: 내용의 변화가 아닌, 조직 전달방식의 변화
- ▶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식, 보다 친숙하게 접근
- ▶ '창조'를 요구하나 '늘 같은 수법'
 - ▶ 무엇이 '창조'이며, '새것' 인지를 잘 모름
 - ▶ '창조'를 원하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혼종적인 모습
- ▶ 변화에 대한 대처 미숙
 - ▶ 흥미본위, '멀티미디어매체'의 과도한 남용
 - ▶ 교육의 통일성이 주조한 기성세대의 교육경험이라는 장애요소



.. 감사합니다

Session 2

“북한 교육방법의 특징과 통일 준비 제언”

**- 이승주
: 여명학교 교사**

북한 교육방법의 특징과 통일 준비 제언

I . 북한의 교육환경

1. 들어가는 말

본 발제자는 북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의 식량난 때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였다. 당시 24세인 저학력의 고령자로서 일반학교 취학이 어려워 여명학교(당시 여명학교는 미인가였음)에 입학하여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겸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였다. 졸업 후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여명학교의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으로서의 경험과 또 지금은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교육과정의 차이와 교육 방법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사회와 환경이 바뀌었고, 창의북한교육환경과는 달리 교육내용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여명학교와 같은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들이 있고, 이러한 학교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었지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내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북한 학생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통일되면 북한 지역과의 통합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남북한 간의 교육내용의 차이나 생경한 교육 환경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응하려 애를 썼지만 정말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남한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이 북한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기 보다는 조금 가르쳐 주고 학생들의 생각을 묻곤 하는데 이것을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교사가 수업준비를 안 해 왔거나 실력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물어 본다고 느꼈을 정도였다.

남북한의 사회가 다르듯 교육목표도 다르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구성하기에 당연히 남과 북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도 차이가 난다. 특히 교육방법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획일화되고 일방적일 때는 학습자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고정화시킬 우려가 있다. 남한에 입국하여 사회가 변하였는데도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보면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일이 걱정이 되었다. 이에 교육주체인 탈북교사와 탈북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다.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켜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역사가 전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놓았듯이 남북한도 머지 않은 미래에 함께 살아갈 것이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통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발제를 준비하였다.

본 발제를 위해 김정은 정권 이후에 탈북한 학생 10명(2014년 이후 탈북, 초, 중, 고 학력 이수자)과 북한에서 다년간 교직에 종사하였다가 남한 입국 후 남한의 일반학교에서 탈북학생코디네이터(보조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1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여명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들을 통해 알게 된 북한의 각 과목별 특징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교육현장의 실질을 파악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김정일 시대의 탈북 교사와 김정은 시대의 탈북 학생들의 중언을 통해 북한 교육의 변화상도 확인하는 기회도 되었다.

2. 교육방법에 영향을 주는 북한교육환경

1) 교육 목적

북한은 지도자인 김일성 가계가 국가와 당에 앞선다. 그러하기에 실질적으로 헌법보다 김일성 가계의 지시가 통치의 근간이 된다. 교육에 있어서도 법보다는 김일성이 교육에 관한 주장들을 모아놓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영향을 더 받는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라고 하였고,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하고 있다(1977.9. 김일성).³⁾ 사회주의 헌법(2009)에서도(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⁴⁾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명시하였다.⁵⁾ 이를 통해 북한정부가 교육을 통해 체제 유지를 꾀하고, 학생들을 “당(북한체제)과 수령에게 충실한 일꾼(사회주의 새 인간)으로 양성”하려는 것이 북한교육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목표로 인해 북한의 모든 교과 내에 북한사회와 지도자의 우수성은 비중 있고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가르친다.

또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늘 개개인의 창의성보다 전체 속의 구성원으로 살도록 이끌었다.

- 북한에서는 교수요강에 의하여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학생들로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다(탈북교사).
- “북한에서의 교육은 개인의 삶이 아닌 국가와 당을 위한 지식, 체력을 겸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육 과목에서도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운동을 가르친다”(탈북교사).
-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예 북한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말조차 없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하에 집단적 정신교육을 한다(탈북교사).

2) 교사의 역할

북한의 교육목적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충성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함” 이기에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행복추구보다는 당과 수령에게 복종하며 충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어려서부터 국가에 충성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게 한 듯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북한의 교실에서는 절대 권위자인 교사와 그의 강의식 교육을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학생들이 존재한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은 후대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5) 북한법제정보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3) 교육주체 간의 상호 작용

북한에서 교사는 미래사회를 위한 “직업 혁명가”로서 권위가 높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강화한다. 일례로 북한에서는 학생이 입학하여 처음 만나는 담임교사가 졸업할 때까지 담임을 맡아 그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담당하기에 학생에 대한 이해가 깊고 영향력도 크다. 남한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저항한다면 북한에서는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참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북한사회는 교사에게 부모 같은 헌신과 역할을 기대하며 교사의 지도에 학생들이 복종하고, 학부모들 또한 학생들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기며 따른다. 이러한 다년간 담임제의 장점은 오랜 시간 관찰하고 그를 깊게 이해하여 학생 지도에 전문성이 생기고 가족 같은 마음이 들며, 학생들 간의 따돌림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가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담임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빅보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졸업할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교의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담당하게 하므로 학부모의 부담이 상당하다.

교사들에게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 실제 북한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교사들도 많다. 그러나 권위를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학생이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생님이 댁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여 주셨어요. 학생들에게 매일 한 명씩 점심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여 굽고 다니는 학생에게 그 도시락을 주는 교사도 있었다(탈북학생).
- 가난한 학생에게 학용품을 선물하는 교사도 있고, 돈이 없어서 교복을 구매하지 못한 학생에게 교복을 구매해 주었다(탈북교사).
- 북한은 담임제가 최소 3년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성취, 취미, 습관, 친구관계 등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생활지도하기가 편하다(탈북교사).
-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한다. 사실 선생님마다 다른데, 어떤 선생님은 친자식처럼 잘 대해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별일도 아닌 걸로 트집 잡고 혼내고 때리기도 한다. (탈북학생).
- 북한은 사제 관계가 수직적이다. 남한에서 학생들이 교사들과 농담도 하고,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탈북교사).

북한은 무상교육을 표방하지만 정부에서 교육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실제 학교나 교육에서 필요한 재원이나 나아가서는 교사 개인의 필요까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분담시킨다.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에 교사는 잘 사는 학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부모들은 교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 갈까봐 교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도 “교사의 자질이 곧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직결된다.” 하여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마다 고시를 통해 교사 자질 점검을 받게 한다.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높으면 그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평가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해마다 고시를 봐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자신의 능력을 대변해 주는 학생 성적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교사는 학교 운영비를 담당해 주는 학생들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교

사 자신의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배려를 하게 된다. 학생들의 성적이나 성과물에 대해 교사의 평가나 상급학교로 가기 위한 추천도 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으며, 교사의 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주요하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별이 조장된다.

- 북한은 학급운영과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학부모들을 통해 해결한다. 학부형위원회장을 맡은 학부모가 책임지고 돋는다. 담임교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교사의 권위를 허용한다(탈북교사).
- 북한은 진로 교육이 없고, 교사가 학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 학부모와 의논하여 진행한다. 때문에 사제관계와 교사·학부모 관계가 끈끈하다(탈북교사).
- 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집 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친한 편이다. 가나하님 선생님과 친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자주 교류하지는 않는다. 학생이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탈북학생).
- 잘 사는 집 애들을 학급 반장과 부반장을 시킨다. 그래야 선생님이 학부모에게서 덕을 볼 테니까요(탈북학생)
-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선생님과 농담을 주고받기는 어렵다. 주로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거나 잘사는 집 아이들과 가까이 지낸다(탈북학생).

4) 수업을 위한 준비 및 환경

① 교사의 수업준비

북한은 교육을 체제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정부는 국정교과서와 교수참고서를 제공하고 교사는 철저하게 국가에서 정해준 교수요강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교사는 동일한 교수 참고서를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수-학습 지도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설명 방법, 예시, 문제풀이 과정 등 모든 것이 소개되어 있다. 제공된 교수자료 외엔 북한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막아서 학생 교육에 필요한 풍성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다. 교사는 교수안을 매 수업 시간 전에 부교장(교감)에게 미리 비준을 받고, 진도표도 기록하며 이를 감독받는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는 창의적인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정형화된 틀을 따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의 수업은 교사가 칠판에 요점을 정리해 주거나 설명하는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들은 주로 주입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렇듯 북한의 수업이 교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교사에게 수업에 있어서의 창의성과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주입식 교육은 어린 학생들을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수안을 미리 완성해야 하며 매 시간마다 교수안을 미리 부교장에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교수안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나라에서 정해 준 교수요강에 맞게 써야 한다(탈북교사).
- 교사의 실력은 학생들의 성적이 증명한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이 강하다(탈북교사).

- 선생님은 수업지도안을 베껴서 사용한다. 내가 글씨를 잘 써서 선생님의 수업지도안을 필사해 준 적이 있다. 엄청 두꺼운 교수안을 보면 수업 지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다. 그걸 그대로 필사했다. 다음날 보니 내가 필사한 내용 그대로 수업 하더라 (탈북학생).

② 교과서 및 참고자료

북한 학생들은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는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 그나마 교과서도 부족해서 학생 전체에게 제공되지 못할 때도 있다.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웃집에서 물려받거나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과거에는 교과서를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후 11년제에서 12년제로 학제 개편을 했는데, 여전히 교과서를 포함한 학용품 공급은 부족하다고 한다. 유네스코에 보고된 바로는 교과서 보급률이 60%이지만 현실은 훨씬 부족하다고 한다. 평양의 소학교는 교과서가 보급되었으나 초급·고급중학교는 <혁명력사>, <수학>, <영어> 교과서만 공급⁶⁾되고 나머지 교과서는 여전히 장마당에서 구매한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지만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구매해서 부를 과시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교과서 외의 참고서나 문제집도 극히 제한적이라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허용된다. 필기장(노트)도 부족해서 글자가 적혀 있는 종이를 연습장으로 재활용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필기장(노트)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 초등학교 때 <최우등의 벗>이라는 수학 문제집이 있었는데, 학급에서 수학을 가장 잘 하는 학생들만 선별되어 방과 후에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풀었다(탈북학생).
-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학생에 한해서 수학문제 1000개가 들어 있는 <꿀꿀이 문제집>을 방과 후에 풀었다(탈북학생).
- 북한에서는 교과서와 노트만 있으면 된다. 그 외의 다른 것은 못 봤다(탈북학생).

기존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가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북한에서도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교실마다 TV가 1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에 필요에 따라 DVD로 영상물을 보여주기도 한다. TV설치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내도록 하여 구입했다고 한다. 또한 학교마다 컴퓨터도 보급되어 컴퓨터 수업도 진행된다. 북한은 1998년부터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컴퓨터 교육 의무화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주로 칠판이나 종이, 혹은 목판에 자판기를 그려서 타자 연습을 하는 수준이었다. 2008년부터는 전국 소학교에서도 컴퓨터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었고, 2013년에 제 1회 컴퓨터 공학 석사가 나왔다⁷⁾고 한다.

- 아침 독서 시간에는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어주는데 가끔 교사가 만화책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애국심과 희생정신이었다(탈북학생).
- 컴퓨터 시간에 컴퓨터가 교실에 1대 밖에 없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한 두 명이 나가서 연습을 해 보고, 종이에 컴퓨터 키보드를 그려서 연습했었다(탈북학생).
- 공산주의 도덕 시간에는 교실 내 TV를 통해 김정은이 나오는 기록영화나 애니메이션, 속담 풀이 영상 등을 보여주었다(탈북학생).

6) ‘12년 의무교육 개편의 의미와 실상’. 중앙일보. 2016.05.27. news.joins.com. 2017.09.30.

- 영어의 경우, DVD를 통해 영어 듣기·발음 연습을 가끔 했다. 이때 학생들은 단어장을 만들어서 암기해야 한다(탈북학생).
- 컴퓨터 수업 시간에는 한 번씩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노래와 자막을 넣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문서작성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탈북학생).

③ 평가

북한에서의 시험은 100% 주관식이며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가르쳐 준 내용을 암기하여 원문 그대로 써야 좋은 성적을 받는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창의력이나 응용력보다 기억력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시험문제를 내는 데 창의력이나 응용력을 동원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시험과 수행평가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교사의 재량이 크며 특히 상급학교 진학 시 교사의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교사들의 재량권으로 학생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국가가 교육 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이를 담당하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사는 좋은 성적을 주게 되며 이를 사회적으로 묵인한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학생의 성적이 조작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북한의 학생들은 남한처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라 하여 긴장감을 갖는 분위기는 아니다.

-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어준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기력이 좋아야 한다(탈북학생).
- “잘사는 학생들이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 학부모가 선생님과 친하면 성적이 더 좋게 나오고 지각·결석을 해도 교사들이 많이 봐줘요.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교 잘 나오고, 내라는 걸 잘 내면 선생님이 다 봐줘요.”(탈북학생)
- 학생들 중에는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친하면 성적은 걱정 안 해도 된다(탈북학생).
- ‘7.15 최우등상’⁷⁾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장의 자녀가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부를 제일 잘 하는 학생이 있는데 다른 학생이 받은 적도 있다(탈북학생).

7) 북한정보포털. ‘산업별현황, 정보통신’. 2017.09.30

8) ‘7.15최우등상 비리로 의미 퇴색’. 자유아시아방송. 2009.07.14. www.rfa.org/korean 2017.10.01.

II. 북한의 교육방법과 변화

1. 북한의 교육방법

북한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밝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설명-토론-논쟁을 통한 “문답식 교육”과, 직관-실물을 통해 확인하고 배우는 긍정감화교육의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이라고 이야기 한다.

“문답식 교육”은 교사가 설명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질문과 대답, 토론을 통해 교육 내용을 내재화하는 방법이다.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주로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된 이야기나 충성스런 사람들의 미담과 실물인 김일성 가계들을 접하면서)에 감동하여 스스로 따라 배우고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긍정 감화식”으로 교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탈청소년들과 이야기해보면 이 “깨우쳐 주는 식, 문답식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의 자유롭게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고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여러 가지 형식 즉, 설명-토론-논쟁, 직관-실물(이야기와 우상화의 실체)로 입체적으로 반복·주입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원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원문 통달식”으로 외우고 내재화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서 원문 통째로 암송하는 것에 익숙했던 북한이 탈청소년들은 간혹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열심히 외우는 경우들이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2012년 9월 25일 김정은이 북한의 교육개혁을 천명하면서 11년제 교육과정을 12년제(초등과정 4년 → 5년)으로 바꾸는 외형적인 변화와 더불어 교과서를 개정하였다. 이 새로운 교과서는 올해로 모두 완결이 되는데 교과서의 내용 중에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지문이 상당 부문 들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과서가 바뀐으로 인해 교육방법도 그에 따라 바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생활에서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노동과 학습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중심의 교육방침 같으나 그 이면에는 학생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 학생들의 실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각 도마다 제1중학교나 외국어 학원 등 영재학교를 통한 리더 양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난의 원인을 인재를 배출하지 못해서라는 반성이 일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반학교를 강화하고자 영재학교를 폐쇄하고 있다고 한다.

2. 북한에서의 실제 수업

위의 교육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업에서는 “모범을 따른다”는 명분 아래 수업방식도 정형화되어 있다.

먼저 숙제 검사를 통해 ‘되새기기’를 한 다음 ‘새 지식주기’와 ‘다지기’ 단계의 본 수업을 진행한다. 교사는 숙제 검사를 통해 숙제를 안 한 학생을 일어서 세우며 말이나 체벌을 통해 훈육을 한다. ‘새 지식주기’와 ‘다지기’의 수업 단계에서는 교사는 사전에 준비한 강의안을 기본으로 교과서 내용을 읽고, 요약하고, 어휘 뜻풀이를 하고, 반복적으로 암기시킨다. 교사는 질문과 예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외우도록 한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배운 것을 암기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공부를 하고 귀가한다.

북한의 교실에서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은 교사주도의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학생

들은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기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은 거의 없다.

북한에서 수업을 할 때 공식적으로 매 수업의 5분 동안은 김일성 가계의 어록을 배우는 ‘위대성 교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매 수업마다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365일 교양”이라는 책자를 교실마다 비치해 두고 매일 첫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당일 날짜에 해당하는 김일성 가계의 행적을 가르쳐 줘야 한다.

3. 북한의 교실 분위기

권위자인 교사들의 수업에 학생들은 의문점이 있어도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에서는 학생들도 1주일에 한 번은 생활총화를 통해 ‘지도부의 생각에 의문을 품는 행위는 반역’으로 치부하며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이 수업에도 반영되어 교사가 질문하기 전에 학생이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수업 시간에는 조용하다. 화장실도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못 간다. 학생들이 잡담이나 장난은 물론, 졸지도 못할 정도로 엄격하고 조용하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의 <혁명활동>, <혁명력사> 선생님들은 더 엄격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실 분위기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학부모들의 권리 주장도 강해진 듯하다. 어떤 경우는 교사의 엄격함에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생겨났는데 이러한 태도는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높아진 결과인 것 같다.

-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은 거의 없다. 졸다가도 선생님 눈에 띄면 바로 깬다. 수업 시간에 옆 친구와 소곤거리지도 못한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아주 조용해서 따라 읽기 시간 외에는 선생님 소리만 들린다(탈북 학생).
- 예전에는 숙제를 안 해오면 앞에 나가 서 있거나, 육을 먹거나, 심한 경우 구타도 당하는 등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사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몇 명 외에는 대부분 졸고 장난을 치기도 한다(탈북학생).
- 수업 분위기는 여전히 엄격한데, 사실상 많이 졸고, 남학생들은 장난도 치고, 잡담도 한다. 우리 학교는 물리 과목이 남자선생님이었는데, 너무나 엄격해서 매 시간마다 숙제 검사를 했고, 안 해 온 여학생들은 종아리를 맞고, 남학생들은 손등을 때렸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항의해서 물리교사가 교장에게 혼나고 며칠 동안 수업도 못했다.
- 선생님이 질문하기 전에 질문하는 경우는 없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공부 잘 하는 몇몇 학생에게 한다(탈북 학생).
- 집안의 토대가 낮거나 가난한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자녀의 공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탈북교사).

4. 중요 과목의 특징과 교육방법,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어려움

1) 국어

북한 국어교육은 체제의 이해와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과목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정치 사상교육을 제외하고 가장 사상성이 노출된 과목이다. 국어 교과서의 모든 단원의 시작을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일반 상식도 김일성과 연결 지어 소개된다. 그래서인지 북한 국어 교과서의 주된 내용은 현대 문학이며 김일성 가계에 대한 칭송과

북한의 우월성을 위해 남한을 비롯한 타국가를 비난하고 인민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모범적 인물을 통해 인민 전체가 그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선동적이고 교화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쓰기 교육은 논리적이고 주관적인 자기표현의 글쓰기가 아닌 어휘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짧은 글짓기”를 훈련한다. 시험을 볼 때에도 수업내용을 “원문 통달식”으로 외워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답을 요구하는 짧은 글쓰기의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듣기교육은 거의 간과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듣기 교육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기에 비판력을 제고하고 싶어하는 북한정부의 의도성을 짐작케 된다.

발표와 토론에 있어서도 문답식 토론법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문답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북한의 글씨기와 발표에서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감동적이고, 선동적인 찬양의 내용이면 좋은 글과 발표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의 국어교육은 제시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무비판적이고 감성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방법(문답, 토론, 글쓰기)을 통하여 ‘반복’학습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의 표현에 있어서도 김일성 가게에만 불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고 이를 반드시 구별하여 쓰게 하는 것도 교육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탁월한, 고매한, 친애하는, 위대한, 영도자, 어버이, 지도자, 장군, 창조자, 원수, 당의 품, 추대, 문현(김일성이 노력하여 만든 작품), 인덕정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등이다.

한자어로 쓰인 ‘원수(元首)’는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이고, 같은 음의 적에 대해서 쓰는 ‘원수(怨讐)’는 ‘원쑤’라고 사용한다. 북한에서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 교화소(정치범 수용소)까지 잡혀간 적이 종종 있어 인민들은 특별히 주의한다고 한다.

북한은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말 한 마디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은 남한에서는 ‘말조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러한 뜻의 북한 속담으로는 ‘짧은 혀 잘못 놀리다 긴 목 날아간다.’, ‘입 안에서 일곱 번 굴리고 한 번 뱉으라.’고 하여 남한에 비하여 다소 과격하고, 직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겐 남한에서 육하원칙에 맞게,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 논리적인 장문의 레포트를 쓰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한다.

“북한에서는 국어가 제일 쉬웠는데, 여기서는 영어만큼 어려워요”라고 고문(古文)과 당성·사상성과 연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를 내용을 배우면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야기 한다.

“해바라기”라는 시문을 주고 글짓기를 하라고 하였더니 한 학생이 ‘우리는 대원수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오직 태양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습니다!’라고 글을 써서 학생들은 키득키득 웃었고 교사도 난감했다. (여명학교 국어 교사)

2) 역사

북한은 국가에서 주입하는 정치성과 가치판단을 인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 교과서의 많은 부분을 “이야기체 형식의 감정적”으로 서술하였

고, 교사도 감정적으로 가르친다. 선악의 관점과 판단이 정해져 있어 교사가 재량으로 다른 가치를 가르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할 여지가 없다.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형이하학적으로 서술한다. 또한 역사 교과서 곳곳에는 역사발전의 동력이 ‘위대한 영도자’ 개인에게 있음을 수시로 강조한다. 남한이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민중의 자발적 운동인 “농민봉기나, 3.1운동, 6.10 만세 운동, 안중근의사의 의거”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반해, 북한의 교과서는 이러한 민중 운동이 “수령의 올바른 지배가 없었기에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역사발전의 동력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역사교과서의 구조와 구조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수동적이며 순종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에 남한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논쟁이 벌어지면 황당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

왕조사를 중심으로 수업하다 조선 건국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건국되었다고 이야기하자 학생들은 이성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성계는 천하의 죽일놈”이라며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이 생각하는 듯 했다. 학생들을 안정시키며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도 해주고 이성계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은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뭐예요?”라며 이야기했다.

북한은 문화재나 예술품을 통해 형이상학적 아름다움이나 가치, 시대양식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추론하며 선현들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형이하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던 북한이탈학생들은 문화사 수업을 할 때마다 “선생님 석가탑 높이가 몇 미터예요?”, “첨성대 돌은 몇 개예요?”,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금관에 달려있는 옥은 몇 개예요?”와 같이 수치에 집중하며 질문한다. 교사는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을 설명하며 미소가 어떻고 조각이 섬세하고 화려하여 신라인들의 예술적 감각을 이야기해도 학생들은 “금이 얼마큼 들어갔어요?”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농민봉기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잡혀갈까봐 무섭지 않을까?” “왜 시키는대로 하지 않나?”,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또 이를 통해 발전이 이뤄진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과 과정이 꽤 길다.

3) 사회과목

북한에서는 사회라는 과목은 없다. 다만 “조선지리(중학교)/지리(고등학교)”라는 과목의 일부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 과목 내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다. 여기서 미국은 인종차별이 극심하고 독점자본가에 의해 극도로 황폐화된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이 이끄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제일로 살기 좋은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가사도 있다. 이런 교육 효과는 우리편(좋은 사람), 상대편(나쁜놈/미국놈)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발달시켰다. 탈북학생 중에는 “내가 미국놈이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 이는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 나라로 높이 사고 지형, 자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은 도이췰란드라 하는데 서독 위주의 통일을 해서인지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 체제우월성을 강조하였지만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며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그동안 교육을 통해 주입한 ‘북한이 최고’라는 인식은 흐려지는 것 같다. “사회주의 도덕과 법”의 과목의 정치색이나 교과의 무게감으로 인해 학생들은 교과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를 주고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려주고 발표를 하게 했다. 힘들게 이 과정을 겪은 아이들은 발표 준비과정 중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피드백을 주기도 하였다. 발표를 마칠 무렵 ‘발표기술을 배웠다’, ‘자료 찾는 법을 배웠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감보다 더 보람을 느끼게 되는 때는 ‘기준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생각의 틀을 깨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이다. 교육방법을 변화해서 그 생각까지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여명학교의 사회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여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였다. 수업시간에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면 처음에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수업방식에 어색하며 난감해 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많아요?” 라며 불평하거나 또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 혹시 수업 준비 안 해 오셨어요?”라고 이야기 한다.

여명학교에서는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하고 논리적으로 잘 쓰면 점수를 주는 서술형 문제를 낼 때가 종종 있다. 북한에서도 서술식 문제를 풀기는 했지만 같은 서술식이더라도 북한에서는 정해진 답을 외워 쓰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정해진 답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서술하는 것에 대해 난처해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 문제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4) 영어

북한의 영어교과서에서 영미 문화를 소개하고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만든 체제 선전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문 중 등장인물이 미국인일 경우에는 항상 가난하고, 직업도 없이, 불행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미국을 싫어하고 비교하여 북한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유도하는 것 같다.

북한에서의 영어 교육의 방법은 단어외우는 것과 문법을 위주로, 단문 해석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시험도 단어나 단문을 영작하거나 독해하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이런 식으로 배운 학생들은 남한의 수능 문제를 보면 기겁할 수밖에 없다.

- 남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수능 대비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봤는데 긴 독해 문제를 푸

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독해문제를 풀어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시험 문제에 나온 단어 수준이 너무 어려워서 놀랐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친구들이 독해 지문 속의 단어를 다 알지 못하고도 정답을 맞추는 데 너무 놀랐어요. 게다가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 등의 문제를 보고는 이것이 영어 시험인지, 국어 시험인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탈북 학생)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영어교육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어 위주로 외국어를 선택하였는데 최근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를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 각 시도마다 “외국어학원”을 설립하여 외국어 영재들을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말 다듬기 운동을 통하여 외국어 용어를 순우리말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정부가 2000년대부터 영국문화원으로부터 4000명의 영어 교사를 양성⁹⁾하는 등 영어 열풍을 유도하고, 2012년 교육개혁에 의해 개정된 영어 교과서에는 영미 문화에 대한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회화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방법도 일방적인 단어 암기식에서 회화위주의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영미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회화위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영어 교과서 내용 중에 파인애플이 나온 거예요. 영어 교사들끼리 교사 지도서를 보았는데 웬 것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것의 일종이구나 생각했었어요. 여기(남한에) 와서 파인애플을 보고 혼자 웃었죠. 그리고 잘못 가르쳐 준 학생들에게 미안하더라구요.(탈북 영어교사)

수업에 사용하는 교구도 다양화되고 있어 그동안 단어카드와 걸그림(패도)으로 진행하던 수업에서 DVD 동영상을 통해 영어 듣기·발음 연습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들로 인해 근래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5) 수학

북한의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의 머리말에 “수학은 중요한 기초과학입니다. 수학을 모르고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를 바로 풀어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김정일의 말씀이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여명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수학을 잘 하는 것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이다.” “수학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다.” “수학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 등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수학은 풀이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매우 경시되고 있고 공식대비 위주 결론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학생들은 흑백논리에 익숙해져 있고 일방적이고 유일한 방법만을 추구하였기에 수학과목에서 문제해결 방식이 여러 가지이고 다양한 문제해결

9) ‘국문화원, 15년간 북한 영어교사 4천명 교육’. VOA. 2016.02.10. www.voakorea.com. 2017.09. 30

방식을 가르쳐 주며,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해 한다. 또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응용을 잘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양한 응용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북한과 다른 방식이라며 힘들어 한다.

수업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 탈북학생들은 “선생님 복잡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러 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이야기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 “공식을 먼저 말해주시면 안되나요?” ,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주시고 질문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여명학교에서 수학수준이 높은 반의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응용문제를 냈더니 시험 끝난 후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을 시험에 내시면 어찌합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업시간에 풀지 않은 유형의 문제는 배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6) 과학

남한은 과학을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과학을 물리•화학•생물의 3분야로 구분하고 지구과학을 물리 및 지리 교과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물리 과목에서는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핵이나 미사일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과학 교육의 명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화학교과서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용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화학교과서를 살펴보면 지하자원 활용법이 주류를 이루고 인민생활에서 자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비누 만들기 등의 ‘생활화학’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 화학 시간에는 수은과 다른 화학물을 혼합하는 실험도 해 봤고 비누를 만드는 실험도 했고, 물리 시간에 구리선으로 변압기를 만드는 실험을 해 봤다(탈북학생).
- 생물 시간에는 야외에서 풀이나 꽃을 채집하여 수업 시간에 채집물에 대해 식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다(탈북학생).

7) 체육

남한에서는 입시에 밀려 체육과목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체육교육을 남한국방과 노동력의 질을 위하여 학교체육과목을 중시하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업간체조”라고 하여 매일 2교시 후 10분씩을 할애했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3교시 후 20분간을 할애하여 체육부분을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을 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하도록 하는 엘리트 체육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북한체제의 위대성을 선전하여야 한다. 간혹 북한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선수들에게 어떤 각오로 시합에 임했느냐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쌌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50m 소총 금메달리스트 리호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북한체육

교육의 소산인 것이다.

북한의 체육과 노동에서 전쟁 상황을 상정한 듯한 용어가 많다. “농촌지원 전투”, “속도전”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북한은 체육 교육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고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지만 전투적인 사회 분위기와 경쟁심을 최대한 신장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자칫 관용과 정정당당함,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대표될 수 있는 스포츠맨십과 멀어지기도 하여 실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도덕이다.” 라며 결과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 여명학교에서 캠프를 가면 씨름이나 닭싸움 같은 것을 처음에 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는 절대로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무슨 전투를 하는 것 같아서요. 친선도모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심판을 잘보고 중재를 잘해도 싸움이 나더라고요.
- 무슨 경기든지 학생들은 호각을 불자마자 전투적으로 게임에 임하더라고요.(여명교사)

5. 탈북교사와 탈북학생들이 바라 본 남과 북의 교육의 장단점

- 우리가 인터뷰한 탈북교사와 탈북학생들은 남한교육의 장점은 교육 방법이 창의적이고, 교구활용이 편리하며,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였고, 교사의 낮은 권위, 학생과 학부모의 지나친 권리 행사, 상급학교 진학 위주의 교육, 사교육 등을 단점으로 생각하였다.
- 반면 북한 교육의 장점은 교사의 행정업무가 적고, 인성교육 중시, 교사의 높은 권위,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장점으로 생각하였으며 교육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세외부담, 교육방법의 경직성 등을 단점으로 평가했다.

- 남한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친하기 때문인지 언제든지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 객관식이 많고 문제를 꼬아서 복잡하게 내서 그런지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상대 평가 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이 순위로 정해진다.
- 학업 능력이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학업성취에 관심이 많고 너무 공부만 하고 인성교육은 뒷전이다.
- 남한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 되서 그런지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교사들이 힘들 것 같다.

III. 북한 교육방법의 특징을 감안한 통일준비 제언

1. 남북한 통일과 통합 준비의 방향

남북한의 교육환경은 너무 다르고 북한사회가 개방이 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현재의 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독일처럼 남한지역의 교육과정을 북한지역에 바로 적용한다면 북한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동서독의 분단기간이 남북한보다 훨씬 짧았으며 동독은 북한처럼 폐쇄적이지 않았고 덜 폭압적이었다. 특히 종교가 핍박을 받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수 있었기에 북한과 같은 지도자의 우상화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급격한 통일로 인해 동독지역은 서독의 교

육과정과 시민교육의 전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통일이후 독일에서는 큰 혼란을 겪었으나 아동·청소년들은 동서독이 같은 것을 배우기에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독인들은 많은 불편과 서운함을 가졌다. 통일 이후 서독도 달라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동독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했다. 독일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통합의 과정에 있으나 교육통합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통일에 연착륙하였고 통일독일은 이를 바탕으로 저력을 만들어 낸 듯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독일의 경우처럼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일방적이며 거의 세뇌 수준이다. 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이 도구화되었고 가장 정치적인 장이 되었다. 북한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세뇌하듯 다음 세대에게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지도자의 우상화 작업을 하였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 통일 때 동독사람들이 겪은 충격과 혼란보다 북한인민들의 혼란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여태까지 배운 바대로 살 수 없으며, 자신이 배웠던 것이 남한의 교육내용과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거짓이거나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 뿐 아니라 창의적으로 살아야 하는 미래시대에 창의성과 자주성을 사장시키는 교육을 받아온 북한사람들이 미래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때 그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하며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말에 “과학이 혁명한다.”라는 말이 있다. 서로 다르게 배웠던 것들은 교과서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진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고의 경향화는 교육내용이 달라져도 습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형성하였던 것은 우리가 고찰한대로 북한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과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정권에서 의도한 바대로 체제우월성과 지도자의 우상화로 세뇌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은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래 우리사회를 위해서 북한사람들의 사고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부족한 창의력과 정보가공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통일이나 통합에 연착륙하는 방법일 수 있다. 요즘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중국체류기간이 최소화되고 있기에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들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에 맞는 적정 교육방법을 연구하면서 통일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체제 전환기 10년의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의 통일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을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제언

북한의 교육방법이 변화하고 있지만 체제유지의 도구로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동안 북한에서는 교육방법에서 제한된 자유가 허용되어 혼란스럽고 이를 조정해 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북한의 교육방법이 기존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것에서 개방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과목마다 이들에게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가르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판능력, 공감 능력,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명학교가 13년 동안의 경험과 오늘 발제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다. 또 통일을 준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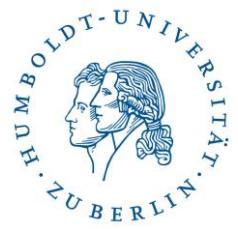
는 차원이나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명학교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하다. 오늘을 계기로 남한 사회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나 북한 청소년들이 교육 내용이 달라서 어려워하는 것도 많지만 기존의 교육 방법으로 인해 남한 학생들과 다른 많은 습성과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해 달라는 것이다.

“아는 만큼 배우고 아는 만큼 이해한다.”는 말이 있는데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머지않은 미래에 함께 살아가게 될 북한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각 과목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수정하고 통합하며 개선할 교육현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모델학교로서 “통일학교”를 운영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합학교의 성공 사례 및 시행착오를 홍보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ession 3

“통일 이후 학교정책”

**- Dr. Rita Nikolai
: 베를린 훌볼트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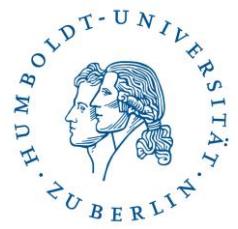


통일 이후 학교정책

동독지역 학교구조, 교원 고용 현황, 커리큘럼의 변화

리타 니콜라이(Prof. Dr. Rita Nikolai), 2017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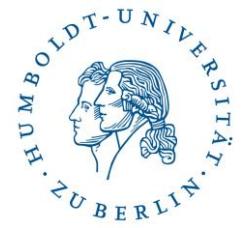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목차

- (1) 학교구조의 변화 (사례: 튜링겐 주)
- (2) 교원 고용 현황의 변화
- (3) 커리큘럼의 변화
- (4) 결론

교육정책에서의 통일프로세스를 연구하게 된 동기



(1) 개인적 동기

(2) 학문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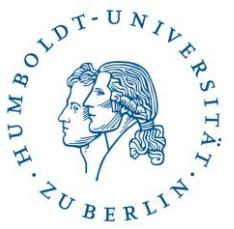
교육정책에서의 통일프로세스를 연구하게 된 동기



«비교할 수 없는»

Helbig, Marcel/Nikolai, Rita
(2015): Die Unvergleichbaren,
Bad Heilbrunn: Klinkhardt.

→ 1949년 이래 독일연방공화국
그리고 1990년 이래 동독지역
연방주 학교시스템 변화



(1) 학교구조의 변화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확대고등학교

(Erweiterte Oberschule)

종합기술고등학교

(Polytechnische Oberschule)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특수학교
(스포츠/예술)

특수학교
(과학 기술)

확대고등학교
(Erweiterte Oberschule)

종합기술고등학교

(Polytechnische Oberschule)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직업 교육

아비투어(Abitur) 포함

확대 고등학교

(Erweiterte Oberschule)

특수학교
(스포츠/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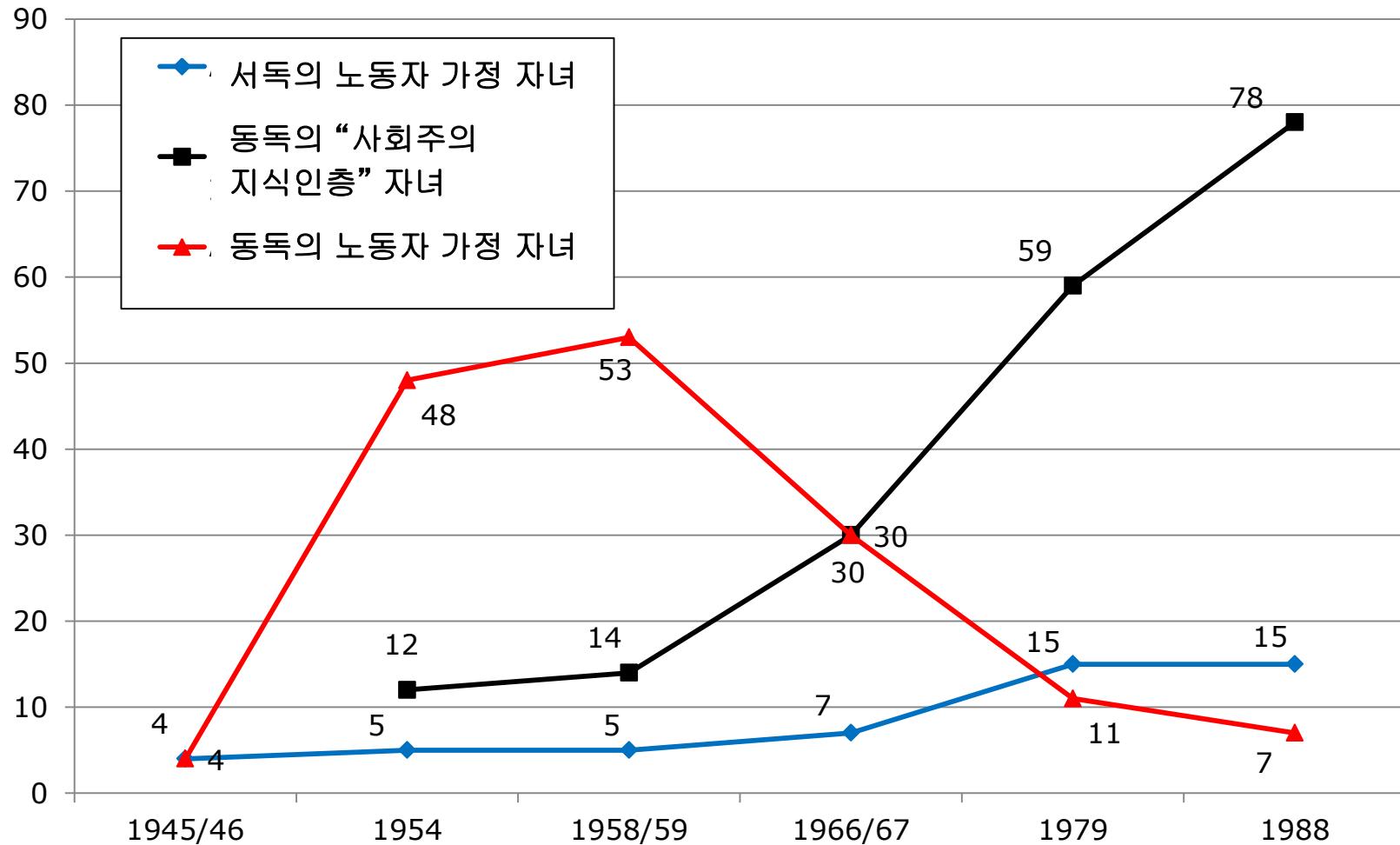
특수학교
(과학 기술)

종합기술고등학교

(Polytechnische Obersch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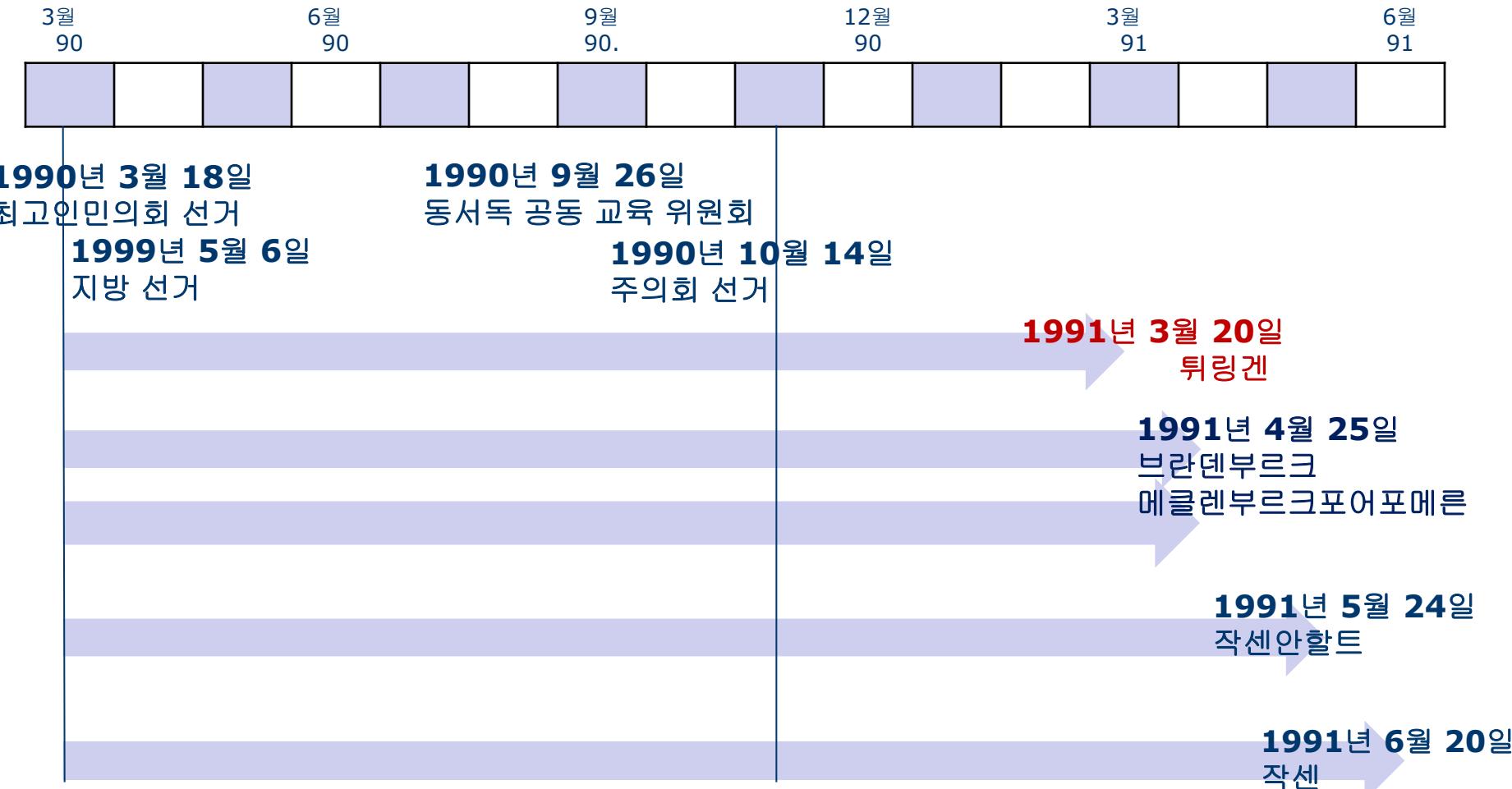
고학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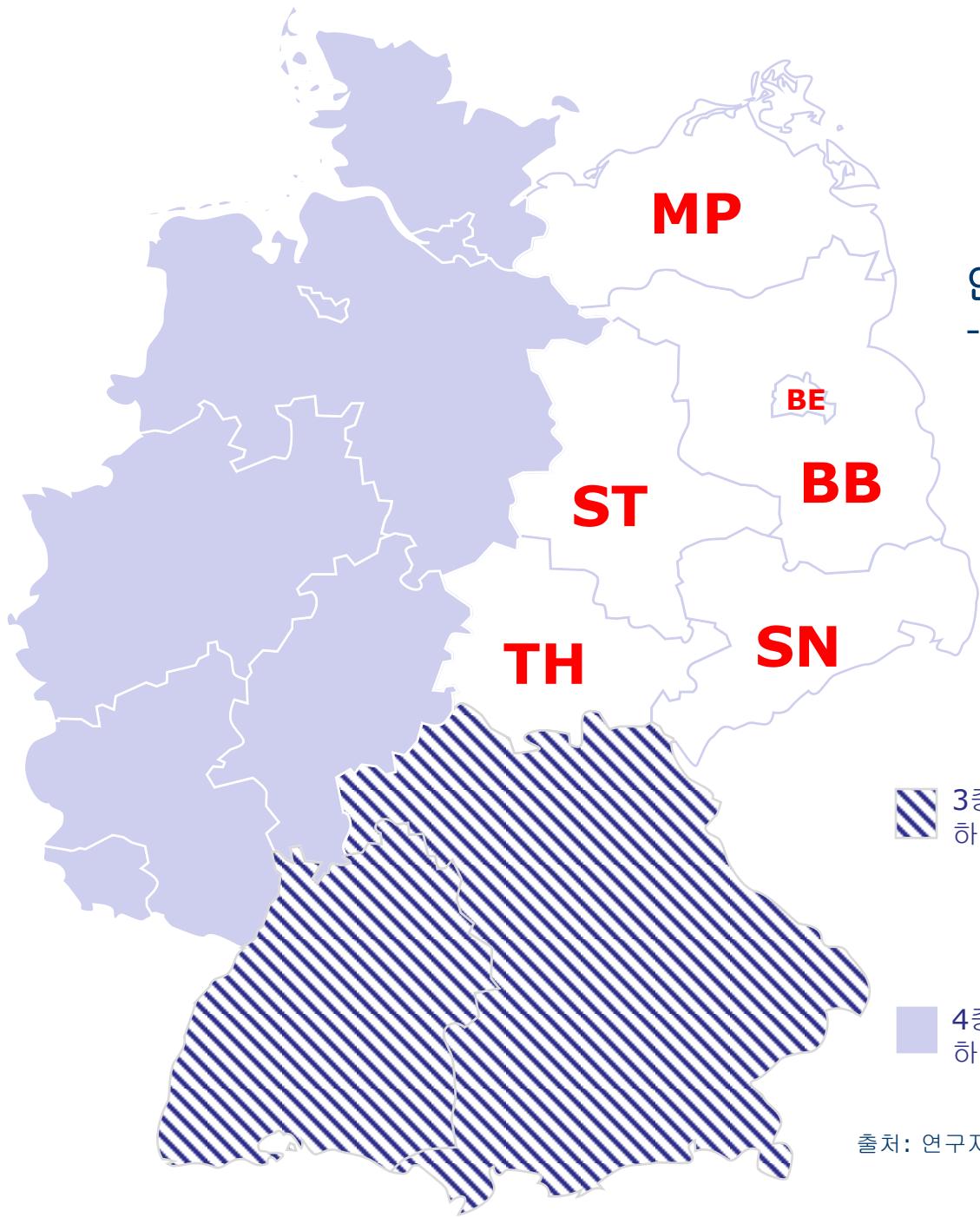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데이터 출처: Geißler 자료 연구자 재정리 (2011: 389).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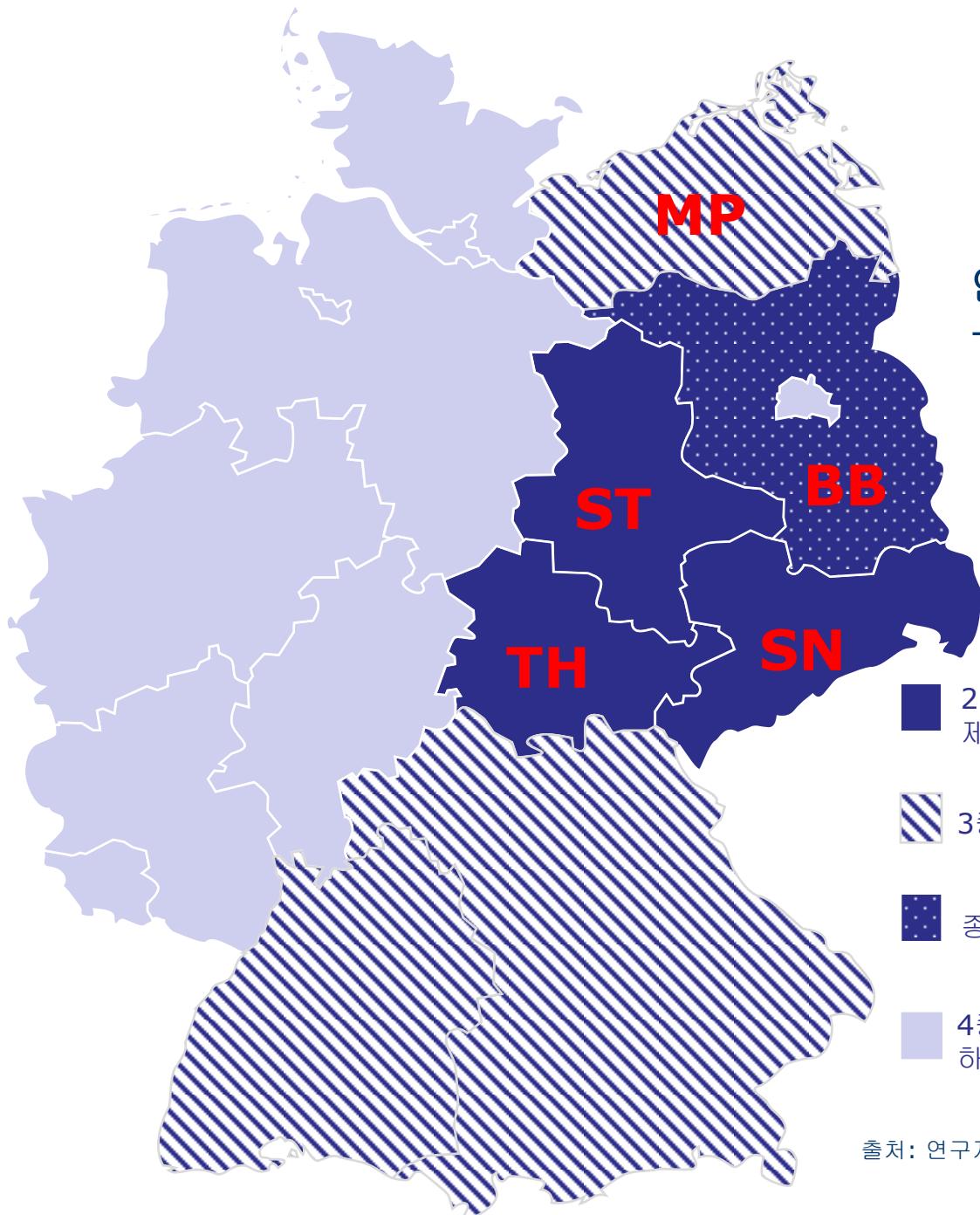
연방주 별 학교구조, 1991년

- 단순화시켜 도식화 -

■ 3중 체계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 4중 체계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종합학교)

출처: 연구자 재정리.



연방주 별 학교구조, 1991년

- 단순화시켜 도식화 -

■ 2중 체계 (김나지움과 SMB(다수의 교육경로를 제공하는 학교))

■ 3중 체계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 종합학교, 레알슐레, 김나지움

■ 4중 체계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종합학교)

출처: 연구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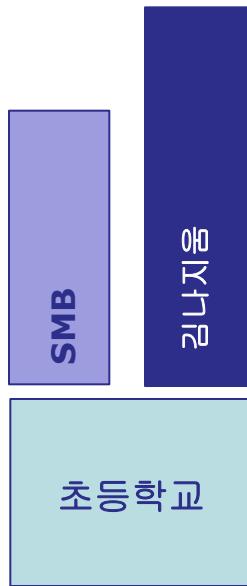


연구설계

- 동독지역 연방주 + 베를린에서 일어난 변화프로세스의 재현을 위한 프로세스 분석 (독일연구협회 지원)
- 조사기간: 1990년 3월 - 1991년 여름
- 질적 내용분석
 - 공식문서와 비공식문서
 - 일간지의 보도내용
 - 지정점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인터뷰

1991년 신연방주의 학교구조

12
11
10
9
8
7
6
5
4
3
2
1



작센안할트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브란덴부르크

12
11
10
9
8
7
6
5
4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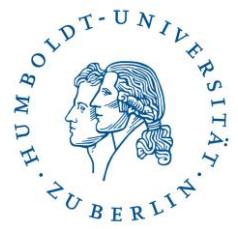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튀링겐

→ 어떻게 튀링겐에서는 2중 체계 학교구조에 의한 혁신력이 발휘될 수 있었는가?



튀링겐의 결정 프로세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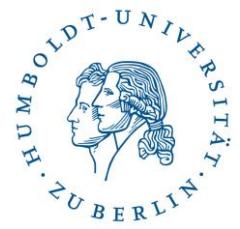
- 1990년 10월 14일 주의회 선거: CDU/FDP-연정
- 요제프 두하츠(Josef Duchač) 총리의 정부성명:
“세분화된 학교시스템”
- 크리스티네 리버크네히트(Christine Lieberknecht (CDU))를 문화부장관으로 임명
 - 개방성: 체계적이어야 하되, 반드시 3중 체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튀링겐의 결정 프로세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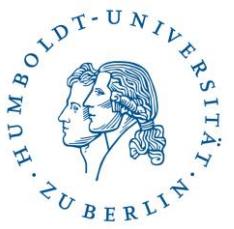
크리스티네 리버크네히트(Christine Lieberknecht)
인터뷰, 1990년 11월 28일 튀링거 알게마이네 일간지:

"[...] 우리는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 성향, 능력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세분화된 그리고 체계적인 학교시스템을 추구한다." [...] 다시 말해 구연방주(서독)의 학교시스템을 결코 그대로 가져와 적용시키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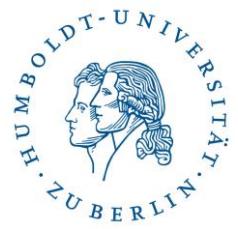
튀링겐의 결정 프로세스 II

- 1990년 10월 14일 주의회 선거: CDU/FDP-연정
- 요제프 두하츠(Josef Duchač) 총리의 정부성명: "세분화된 학교시스템"
- 크리스티네 리버크네히트(Christine Lieberknecht (CDU))를 문화부장관으로 임명
 - 개방성: 체계적이어야 하되, 반드시 3중 체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1990년 12월 21일자 법안초안:
 - 라인란트팔츠 자문단에 의해 작성
 - 시민들의 저항(예: 1991년 1월 10일 튀링겐 주의회 시사주제토론회(Aktuelle Stunde)) 및 연정 내 분쟁을 야기시킴



튀링겐의 결정 프로세스 III

- (바이에른 문화부 차관인) 헤르만 슈트뢰벨을 튀링겐 문화부에 파견
 - “핵심인물”
 -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를 결합시키자는 아이디어
- 언론상의 논의
 - “하우프트슐레는 점차 사라지는 학교의 형태” (튀링거 알게마이네 1990년 12월 14일)
 - 수많은 군-학교회의에서 학생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하우프트슐레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 (1991년 1월 15일과 1991년 1월 16일 튀링거 타그블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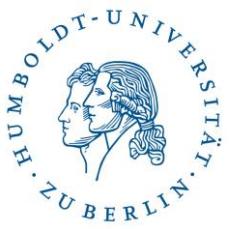
튀링겐의 결정 프로세스 IV



1991년 3월 28일 학교개혁법:
레겔슐레와 김나지움으로 구성된 2중
체계를 가진 중등교육 시스템

“튀링겐 고유의 ‘창작물’” (디터 알트하우스, 튀링거
알게마이네 1991년 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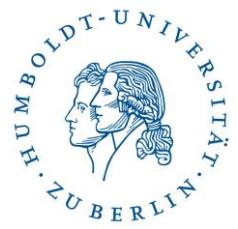
레겔슐레는 학년 별로 학급이 하나뿐인 지방 학교의
유지 그리고 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의 교육을
가능케 해줌 (리버크네히트, 1991년 3월 20일 및
1991년 3월 27일 튀링거 타그블라트)



레겔슐레 도입의 동기

“처음부터 2중 체계를 갖는 학교구조를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는 혁신적 시스템으로 간주되었다. 2중 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레겔슐레가 튜링겐이 나가야 할 길이자 절충의 길로 참호전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들 했다.” (인터뷰 TH6)

“레겔슐레는 우리가 봤을 때에도 종합학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올바른 대책이다. 레겔슐레는 튜링겐의 상황에 적합하며 통합 시도를 외적 세분화와 동시에 실현 가능케 해준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통합학교를 통한 내적 세분화는 이미 이전에도 시도되었으며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인터뷰 TH6)



김나지움 도입의 동기

“김나지움은 반드시 도입되어만 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동독이 설립되기 전까지 김나지움으로 사용되었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들을 통해 김나지움의 전통이 강조되었다. 수많은 추억들이 김나지움 도입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인터뷰 TH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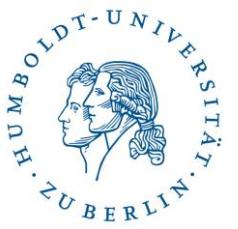
“김나지움은 성공을 상징했으며, 번영, 부, 성공, 밝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 김나지움은 커다란 등대였다. [...] (인터뷰 TH6)”

“[...]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되는 요구가 있었다. 바로 김나지움에 대한 요구였다. 그것은 신성한 불가침의 요구였다. 김나지움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눈이 반짝거렸다. 김나지움은 구연방주(서독)의 것으로 전통이며,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것을 원했다. 김나지움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적 할복, 정치적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인터뷰 TH7)



그대로 가져와 적용/점령?

“우리는 점령당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는 우리를 점령한 사람들과 함께 도망쳤으며 도망치는 최상의 방법을 찾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구상을 더 빨리 실현했다.” (인터뷰 TH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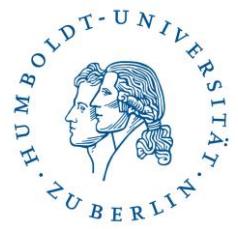


(2) 교원 고용 현황의 변화

교원 고용 현황의 변화



- (1) 통일 이후 교원의 계속고용
- (2) 교원의 임금
- (3) 교원의 지위



정치적 과거사가 있는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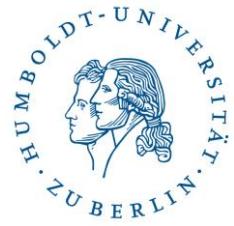
→ "정치적 과거사가 있는(*politisch belastet*)": (1) 도(道), 군 장학사 출신자 (2) 장학관, (3) 간부집단 지도자, (4) 블록정당의 상임간부, (5) 자유독일청년단(FDJ) 구중앙위원회 위원 및 사회주의통일당(SED) 최고인민회의 원내교섭단체 위원, (6)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

→ 연방주마다 다르게 처리

- 작센의 경우 교원을 엄격하게 해고 → 해고된 다수의 교원은 1990년대에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
- 그 외 연방주에서는 특히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으로 확인된 경우 교원을 해고함
- 예외적 경우: 브란덴부르크: 의무수업시간의 80% 및 동독 시절 임금의 80% 수준으로 수업시간과 임금을 삭감한 후 서서히 다시 늘림

→ 새로운 학교시스템,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은 그대로

교원 감원



연방주	1991년 기준 교원 현황	향후 교원 현황	예정된 감원 인원	그 중 정치적 과거사로 인한 감원 인원
베를린	교원의 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			
브란덴부르크	34,500	28,000	6,500	1,000
메클렌부르크포 어포메른	25,400	21,300	4,100	
작센	25,400	21,300	10,000	3,000
작센안할트	38,000	32,000	6,000	
튀링겐	29,000	26,800	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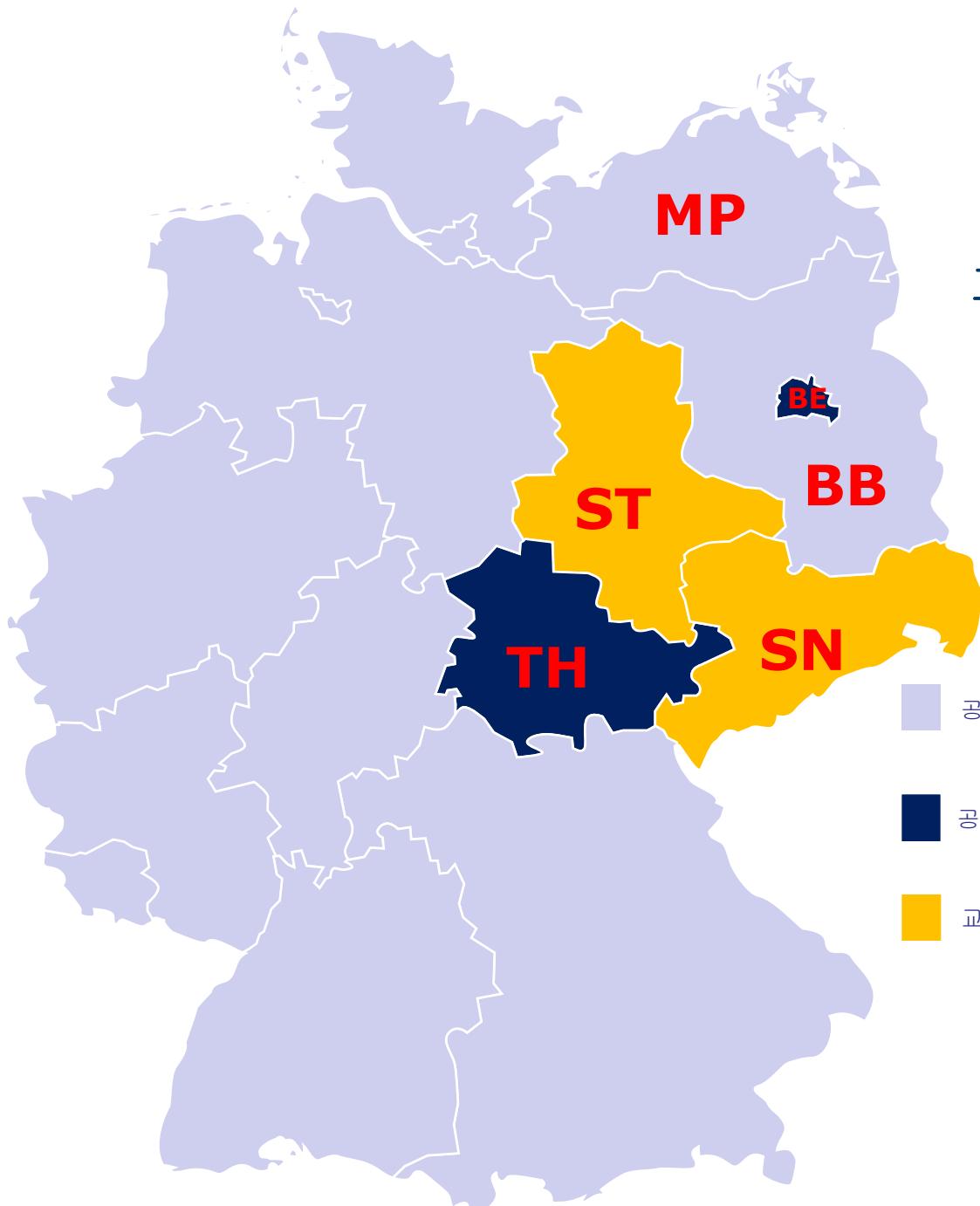
교원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



- 국가시민교과(**Staatsbürgerkunde**)와
폴리테크닉(**Polytechnik**) 담당교사에 대한 수요가
없어짐
- 러시아어 교사에 대한 수요 역시 매우 낮음
- 제1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수요가 생김



교원의 공무원 전환, 1992년



■ 공무원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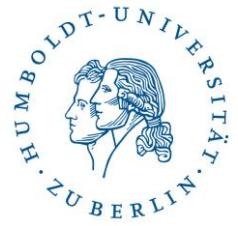
■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음

■ 교장 및 교장대리만 공무원으로 전환



(3) 커리큘럼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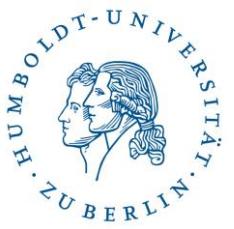
커리큘럼의 변화



모든 과목 및 이하와 같은 새로운 과목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계획

- 제1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 브란덴부르크 및 작센에서는 소르비아어
- 정치사회과목/사회과목
- 역사
- 종교/윤리

➔ 서독의 교육계획을 지향함



(4) 결론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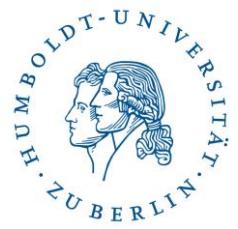


- 강화메커니즘과 제도적 변화의 동력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 김나지움의 재도입과 함께 서독의 '경로'를 수용
 - 경로의존적 변화의 틀 속에서 "제한적 변화(bounded change)" (피어슨)
- 튜링겐의 경우 개혁지향적 행위자들은 제도적 혁신을 지지, 그러나
 - 기존의 학교구조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2중 체계를 갖는 학교구조
- 새로운 학교시스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원은 그대로
- 서독의 교육과정을 지향함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Geißler, Rainer (2011): Bildungsexpansion und Wandel der Bildungschancen. Veränderungen im Zusammenhang von Bildungssystem und Sozialstruktur. In: Geißler, Rainer (Hrsg.),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74-299.*
- Schmidt, Wolfgang (1991): Die Neustrukturierung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7-38, S. 37-45.*